

✿ 미나베·다나베 지역에 관하여

기이 반도의 남서해안 부근에 위치한 '미나베·다나베 지역'은 인구 약78,000명(2016년 6월 현재)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실 생산은 재배 면적 4,180ha, 생산량 60,100t(2014년 농림수산 통계)으로 일본 국내의 50% 이상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일본 제일의 매실 생산지'입니다. 특히, 1965년에 지역의 통일 품종으로 선정된 '난코우메'는 우메보시(매실 장아찌)의 최고급품으로 사랑 받아 일본의 매실을 대표하는 일류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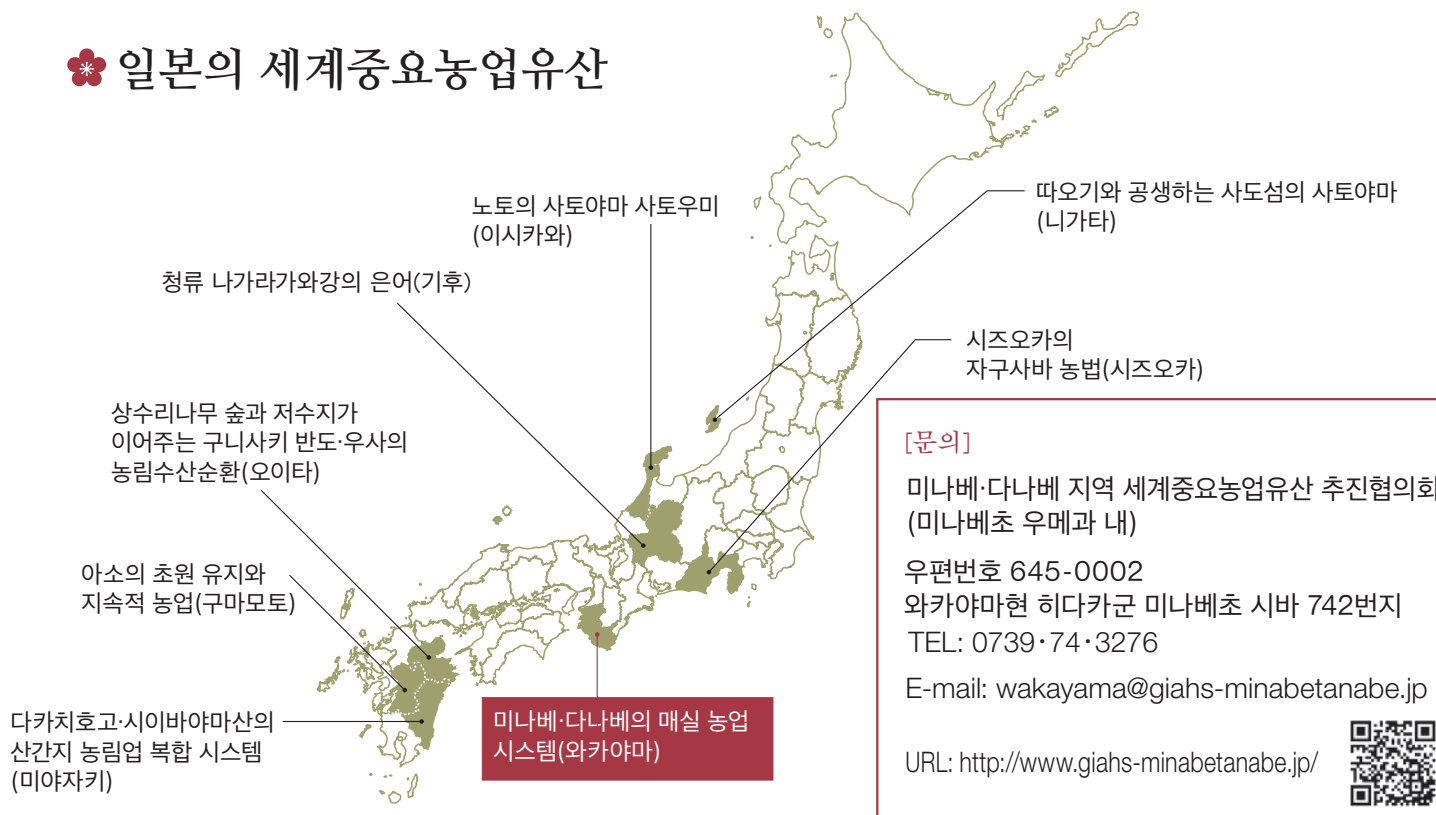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은 농업의 대규모화, 품종 개량, 비료의 대량 사용 등 근대화로 인해 상실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전통적인 농업, 농촌의 문화나 경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를 다음 세대로 보전·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시작한 인정 제도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마사이의 목축(케냐)과 플로팅 가든 농법(방글라데시) 등,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16개국, 37개 지역(2017년 3월 현재)이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미나베·다나베의 매실 농업 시스템' 등 8개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교통편]

도쿄에서 가장 빠른 교통편은 항공기. 하네다 공항에서 난키 시라하마 공항까지 약1시간 15분, 공항에서 당 지역까지 자동차로 약30분. 하네다 공항에서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약1시간 10분, 공항에서 당 지역까지는 전철과 자동차로 약1시간 30분. JR신오사카 역에서 전철로 약2시간, JR 교토 역에서 전철로 약2시간 30분.

✿ 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문의]

미나베·다나베 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추진협의회
(미나베초 우메과 내)

우편번호 645-0002

와카야마현 히다카군 미나베초 시바 742번지

TEL: 0739-74-3276

E-mail: wakayama@giahs-minabetanabe.jp

URL: <http://www.giahs-minabetanabe.jp/>



세계중요농업유산

미나베·다나베의 매실 농업 시스템

Minabe-Tanabe Ume System



'미나베·다나베의 매실 농업 시스템'은 2015년 12월 15일,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GIAHS운영·과학 합동 위원회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승되는 미나베·다나베의 매실 농업 시스템

2015년 12월, 400년 전부터 계승되어 온 지속 가능한 매실 중심의 농업 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미나베·다나베 지역은 신탄림을 남기면서 산의 경사면에 매실나무숲을 조성함으로써 수원 함양과 붕괴 방지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고품질의 매실을 생산하고 있는 점, 일본 꿀벌을 이용하여 매화의 꽃가루받이를 한다는 점, 마을의 산과 토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풍요로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 기슈 비장탄의 ‘신탄림’으로 산을 보호한다

미나베·다나베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신탄림을 남기기 위하여 산 전체를 매실나무숲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관습을 지켜 오고 있습니다. 숲 장인이 기슈 비장탄의 원재료인 털가시나무와 떡갈나무를 택벌함으로써 산사태와 산의 황폐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 숲 장인의 착실한 관리·정비가 있어야만 산은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지속 가능한 농림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숲 장인의 까다로운 눈썰미와 기술로 택벌된 털가시나무는 1000℃가 넘는 고온에서 구워져 단단하고 섬세한 고급 ‘기슈 비장탄’이 됩니다.



용어 해설

신탄림 ▶떨감이나 숲의 원료가 되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삼림. 털가시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산벚나무, 팽나무 등으로 구성된 마을 산의 잡목림으로, 정기적으로 사람이 손질하여 관리·유지됩니다.

기슈 비장탄 ▶털가시나무나 떡갈나무를 고온으로 쪼낸 후 가마 밖에서 재를 뿌려 소화하는 독특한 제조법으로 만드는 ‘참숯’. 미나베·다나베 지역의 기슈 비장탄은 전문 요리사들 사이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 함양 ▶삼림의 토양이 빗물을 저장하여 수원을 유지하는 기능.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여 홍수를 막고, 하천의 유량을 안정시키며, 빗물이 삼림토양을 통과함으로써 수질이 정화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택벌 ▶한 그루에서 여러 줄기가 자라는 나무를 벌채할 때, 숲에 적합한 굴기의 가치를 필요한 만큼 선택하여 벌채하고, 가는 가지는 자르지 않고 남겨 둠으로써 후계수를 길러 삼림의 갱신을 도모하는 벌채법.



계절에 따라 다른 풍광을 보이는 매실나무숲. 매화가 피는 계절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2 꿀벌이 꽃가루받이를 하여 매실이 자라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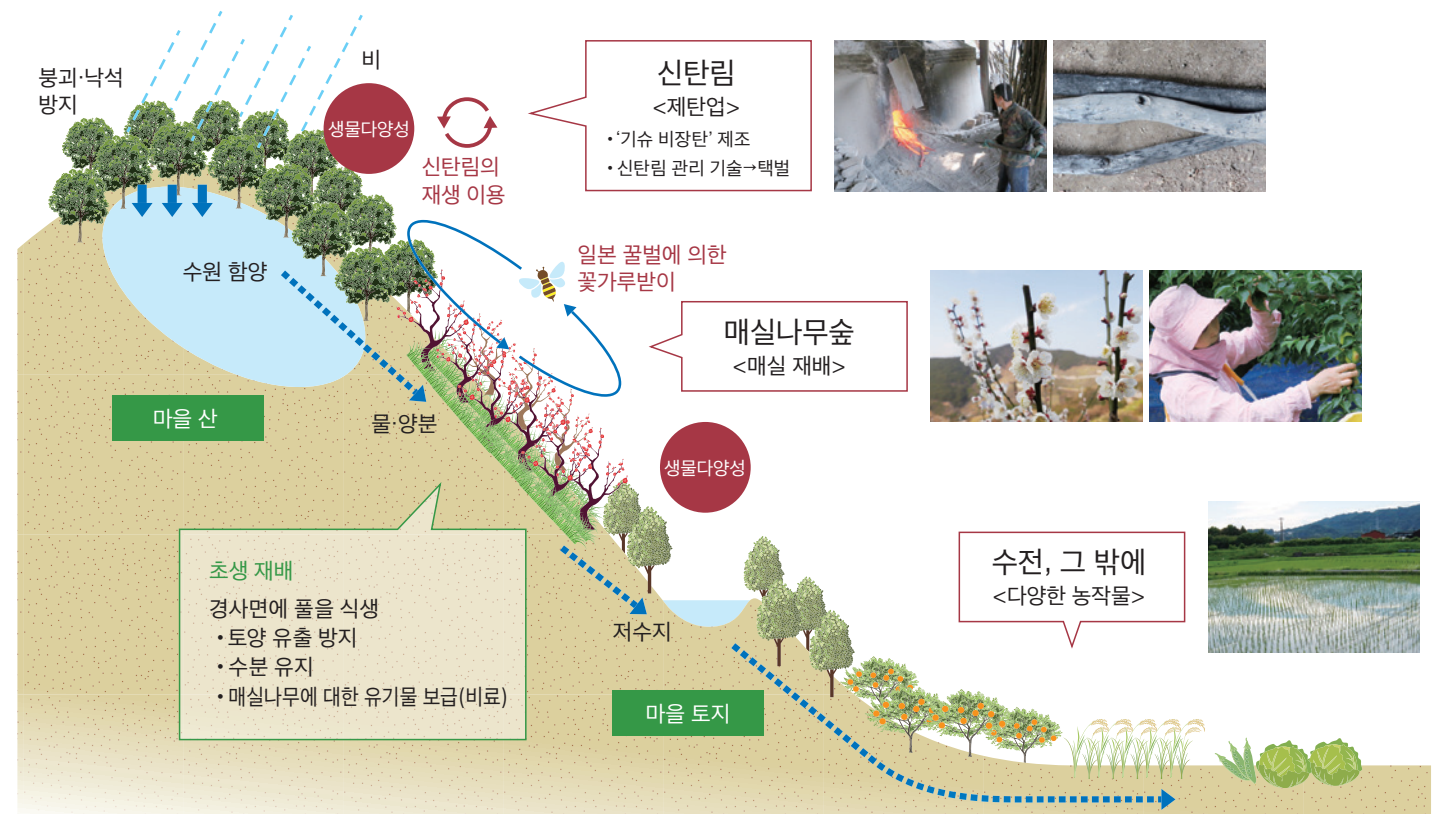
미나베·다나베 지역에서 재배되는 매실의 많은 품종은 제꽃가루받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매실나무를 근처에 심고 그 꽃가루로 꽃가루받이를 시킵니다. 수 백 그루에 이르는 나무에 수작업으로 꽃가루받이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로부터 꽃가루받이에는 일본 꿀벌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꽃이 적은 이른 봄에 만개하는 매화는 지역에 서식하는 일본 꿀벌의 귀중한 꿀의 공급원이기도 하여 본격적인 활동 시기 전의 훈련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매실과 꿀벌의 공생 관계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난코우메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에서 선별·육성된 매실. 껍질은 얇고 과육이 두꺼우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으로 우메보시용으로는 최고급 품종입니다.

일본 꿀벌 ▶예로부터 일본의 산과 들에 서식하는 꿀벌.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모든 종류의 꽃에서 꿀을 모으는 것이 특징. 최근, 자연림에서의 서식수가 감소하여 종의 존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꽃가루받이(자가화합성) ▶동일한 품종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으면 열매를 맺는 것. 대부분의 매실 품종은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3 매실의 수확·가공 기술이 고품질의 난코우메를 기른다

미나베·다나베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매실 생산자가 수확한 매실을 시라보시(소금 절임)하는 1차 가공까지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난코우메는 재배 단계부터 양질의 우메보시가 되도록 길러집니다. 또한 가공업자도 난코우메의 매력과 특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생산자와 가공업자의 밀접한 연계’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평가를 받게 된 포인트입니다.



난코우메는 완숙된 후에 수확되는데, 당 지역에서 고안한 ‘떨어져도 열매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경사면에 그물을 쳐서 모으는 농법’에 의해 외견도 매우 깨끗합니다.

용어 해설

청매실·완숙 매실 ▶청매실은 아직 덜익은 매실. 매실주, 매실주스, 매실사워 등에 이용됩니다. 완숙 매실은 완전히 익어 전체가 노랗게 변한 매실. 매실은 부드럽고 향기도 방순하여 우메보시나 매실잼에 안성맞춤입니다.

시라보시 ▶수확한 매실을 물로 세척하여 소금에 절인 옛 전통 우메보시. 조미 우메보시의 재료도 되지만, 현지에서는 이 심플한 ‘시라보시’아말로 전통적인 ‘우메보시’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조미 우메보시 ▶가공업자에 의해 시라보시의 소금기를 뺀 후에 다른 소재와 절이거나, 조미액에 절여서 맛을 낸 우메보시. 차조기 우메보시, 다시마 우메보시, 가다랑어 우메보시, 벌꿀 우메보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4 신탄림에서 바닷가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한다

미나베·다나베 지역의 매실나무숲과 신탄림에서는 새매나 참매가 서식하고 왕새매나 벌매가 비래하며 또한 산간의 저수지나 마을 토지의 수전에서는 가스미 도롱뇽과 일본얼룩배영원 등의 희소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리노하마 바닷가(미나베초)는 혼슈에서 붉은바다거북의 산란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는 ‘미나베·다나베의 매실 농업 시스템’에 의해 토양 붕괴와 유출이 방지되어 종합적인 자연 환경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슈 매실모임

마을의 산이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고 자연을 후세에 계승한다.



자치 단체, 농업 관련 단체, 우메보시 가공조합 등으로 조직된 ‘기슈 매실모임’은 1545년 6월 6일에 교토 ‘가모 신사’의 정기 제례에서 당시의 천황이 매실을 봉납했다는 옛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6월 6일을 ‘매실의 날’로 정했습니다. 매년 6월 6일에는 가미가모 신사, 시모가모 신사(모두 교토시), 스가 신사(미나베초), 구마노혼구타이샤 신사(다나베시)에 매실을 봉납하여 수확에 감사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